

영영판의 범주에 대한 재고찰

박 순*

- I. 서론
- II. 嶺營板의 종류
- III. 嶺營板의 기준에 대한 再考
- IV. 영영판의 범주와 판본의 특징
- V. 맺음말

국문초록

경상도지방은 조선시대 가장 출판이 왕성한 지역 중의 하나였으며, 그 중심에는 출판문화를 선도한 경상감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경상감영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경상도지방을 다스리기에 필요한 책을 중심으로 서책을 간행하였고, 책의 말미에는 예외없이 영영에서 간행하였다는 刊記를 새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경상감영의 정책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관찰사의 인연에 의해 감영의 비용으로 책을 간행하고 이를 간기에 새겨놓은 책들도 많이 발견되는데, 필자는 과연 이들도 영영판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가?하는 의문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 책들은 경상감영의 공적 목적이 아닌 관찰사 개인의 일로 보아야 하며, 영영판의 범주에 넣어야 하는 책은 그 간행 목

*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 istopia@koreastudy.or.kr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17..66.005>

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에 본고는 기존 연구의 목록에서 간행 목적을 근거로 새롭게 영영판에 속할 수 있는 서책들을 새롭게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주제어

경상감영, 영영판, 公的 목적, 간기, 감영의 비용,

I. 서론

嶺營板이란 조선시대 경상도 감영에서 간행한 서적을 말한다.¹⁾ 조선의 개국 이래 각 도의 관찰사는 일정한 공관에 머물지 않고 관찰 지역을 순행하며 업무를 보다가, 선조 34년 대구에 고정적인 감영을 설치하면서 관찰사가 상주하는 체제가 한일합방 때까지 유지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영판이란 바로 유영留營 시기의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서책을 의미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영영판의 종류, 간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의 연구가 다수 있다. 柳鐸一은 영영에서 간행된 서적을 刊年이 확인된 것과 미확인 된 것을 구분하여 160종의 서적을 확인하였으며,²⁾ 이후 조사를 더 진행하여 총 203종까지 간행본을 찾아 목록화하였다.³⁾ 이외 윤병태,⁴⁾ 장인진,⁵⁾ 조정화⁶⁾ 등의 연구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분량의 간행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들 연구에서는 영영에서 간행된 책의 거의 전부가 목판본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⁷⁾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영영판의 범주를 출판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경상도 감영>이라고 하는 장소와 <경상도 관찰사>라는 인물이 출판 행위에 관련된 것과 조선시대의 책판목록에 영영장판으로 기재된 것 등을 모두 영영판의 범주로 넣은 것으로 파악된다.⁸⁾

-
- 1) 趙婷化, 「朝鮮朝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2, 1987. 285쪽.
 - 2) 柳鐸一, 『영남지방 출판문화 논고』 (세종출판사, 2001). 274~320쪽.
 - 3) 경상북도, 『慶尙道七百年史』 제3권.(2006). 668~680쪽. 그러나 『慶尙道七百年史』 제4권 999~1006쪽에서는 다시 註2)와 동일한 목록을 제시하고 160종만 기록하고 있어 혼동이 생기고 있다.
 - 4) 윤병태, 「경상감영 및 대구간행의 목판인쇄문화」 『圖書館報』 4(1979).
 - 5) 장인진, 「경상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출판에 끼친 영향」, 『한문학연구』 17.(2003)
 - 6) 조정화, 「조선조 후기 영남관판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및 앞의 논문.
 - 7) 조정화는 앞의 논문(1987) 304쪽에서 고종 26년에 간행된 『濟嬰新編』만 민간목활자를 이용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목판본이라 하였다.

본고는 과연 이 모든 서적들을 전부 영영판이라 칭할 수 있는가? 하는 원초적인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선행 연구에서 영영판으로 분류한 목록을 재차 제시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책들은 새롭게 몇 종을 찾아내어 목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구감영 체재 이전에는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책들도 기록을 통해 찾아보았다.

매우 아쉬운 것은 영영판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단 1종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목판으로 책이 간행되었는데, 이 목판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영영판으로 알려진 목판 4천여 장이 남아 있는데 매우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이 목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嶺營板의 종류

1. 대구 감영 이전의 영영판

보통 영영판이라 함은 대구에 고정적인 감영이 설치된 시기부터 철폐되기까지 출간한 서적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 경상감사가 경상도를 순력하던 시기에도 끊임없이 서적이 간행, 배포되었기 때문에 이를 한번 고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들 책 중에는 이름만 남은 것도 있으며 후대에 중간되어 전해지는 서적들도 다수가 있다. 우선 그 목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周易, 書經, 春秋 : 1429.2.23.⁹⁾
- 補註銅人經 : 1431.5.11.¹⁰⁾

8) 조정화(1987), 285~286.

9) 세종실록 권43. 세종 11년 2월 己亥. “慶尙道監司, 進新刊易·書·春秋板子, 命下鑄字所”

- 楊輝算法 : 1433.1.11) / 1433.8.25.12)
- 檢屍狀式 : 1439.2.6.13)
- 兵要 : 1456.2.2.14)
- 陣書 : 1456.7.4.15)
- 大明講解律 : 1466.12.7.16)
- 樂書 : 1468.4.28.17)
- 陸宣公奏議 : 1475.2.10.18)
- 食療纂要 : 1487.4.27.19)
- 新撰救急簡易方 : 1489.5.30.20)
- 將鑑博議 : 1489.10.20.21)
- 西陽雜俎, 唐宋詩話, 遺山樂府, 破閑集, 補閑集, 太平通載 : 1493.12.28.22)

-
- 10)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5월 甲戌. “禮曹據典醫監牒呈啓~今詳補註銅人經有圖形, 難用鑄字印之, 請就有材木慶尙道刊板~ 從之”
- 11) 책의 刊記에 의함. 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 404-17 참조.
- 12)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8월 乙巳. “慶尙道監司進新刊宋楊輝算法一百件, 分賜集賢殿、戶曹, 書雲觀習算局”
- 13)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 2월 乙卯. “命漢城府, 刊行檢屍狀式 又傳旨各道觀察使及濟州安撫使, 刊板摸印 頒諸道內各官”
- 14) 세조실록, 세조 2년 2월 辛丑. “分送新纂兵要, 江原·全羅·慶尙道刊板”
- 15) 세조실록, 세조 2년 7월 辛未. “兵曹據慶尙道觀察使牒呈啓, 陣書印出紙令勿上送, 本道及全羅、忠清道各輸紙墨, 用晉州新刊板子印出, 中翼十五件, 左右翼及獨鎮各十件藏之, 令本道另備紙墨, 量數印出投進 從之”
- 16) 세조실록, 세조 12년 7월 庚午. “上出內藏大明講解律及律學解頤、律解辨疑等書, 命大司憲梁誠之校正 分送講解律于慶尙道, 解頤于全羅道, 辨疑于忠清道, 使之刊印各五百件, 廣布中外”
- 17) 세조실록, 세조 14년 4월 丁巳. “命分送樂書于慶尙·全羅·忠清·江原道 開刊”
- 18) 성종실록, 성종 6년 2월 己丑. “慶尙道觀察使金永湍 新刊陸宣公奏議印進”
- 19) 성종실록, 성종 18년 4월 丙申. “右贊成孫舜孝 進食療纂要(醫員全循義所撰 舜孝曾爲慶尙道監司 令刊於尙州)”
- 20) 성종실록, 성종 20년 5월 丁亥. “內醫院提調領敦寧尹壕等, 進新撰救急簡易方九卷 傳曰 “宜多印遍頒中外諸邑 且令閭閻小民 皆得印出” 壕等啓曰 “諸邑難以遍頒 請令諸道監司開刊于本道 界首官印行” 傳曰可”
- 21) 성종실록, 성종 20년 10월 甲辰. “下書諸道觀察使曰 今送將鑑博議 開刊廣布”
- 22) 성종실록, 성종 24년 12월 戊子. “弘文館副提學金謹等上劄子曰 伏聞, 頃者李克墩爲慶尙監司、李宗準爲都事時, 將所刊西陽雜俎·唐宋詩話·遺山樂府及破閑·補閑集·太平

- 黃痘瘡疾治療方：1550.11.10.²³⁾
- 太虛亭集：1569.2.²⁴⁾

위의 목록은 연대기를 중심으로 대구감영 이전에 영영에서 간행한 책을 살펴본 것이지만 문집 등을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책이 발견될 것으로 짐작된다. 발간된 책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위의 목록을 통해서 조선전기에 영영에서 간행된 책들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유학의 경전을 비롯하여 의학서, 병서, 산학, 율서, 예학서 등이 주로 간행되었고, 개인의 문집은 거의 간행의 예가 없다는 점이 조선 후기의 간행 형태와 매우 대비되는 점이다. 이는 건국의 초기라는 시대적인 특수성, 이에 따른 국가의 제도 정비의 필요성, 성리학의 정착 과정, 지방 행정의 필요 등에 따른 서적의 간행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는 영영만의 특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 행정의 필요에 따른 서적은 북방의 경우 군사관련 서적이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등 지역적인 특징이 서적의 간행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대구감영 시기의 영영판

영영에서 간행된 서적의 종류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이 어떤가를 떠나서 이미 여러 차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 목록에 나온 서적들의 간행 동기, 주체 등을 전거를 통해 알아보면 영영판으로 분류된 서적들의 선정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이른바 영영판의

通載等書以獻, 既命藏之內府~~”

23) 명종실록. 명종 5년 11월 己亥.“以黃痘瘡疾治療方 下于政院曰 “見此方文 治法簡要 各道州府郡縣僉使萬戶處 已命依啓印頒矣。然窮村僻巷人 不得徧觀 令監司及州府巨邑 印給境內人民則其於治療之方 多有裨益矣”

24) 『太虛亭集』崔蘊의 발문에 의함. 최항의 증손 崔興源이 慶尙都事 재직중 간행.

종류를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²⁵⁾

[확인된 영영관 목록]

• 經書釋義 • 洪崖先生遺稿 • 分流杜工部詩(診解) • 拙翁集 • 稼亭先生文集 • 坡谷遺稿 • 東國地理志 • 易學圖說 • 佔畢齋先生集 • 家禮考證 • 笏記 • 龍飛御天歌 • 南坡相公集 • 麗史提綱 • 漫浪集 • 東萊先生音註唐鑑 • 靜庵先生文集 • 月沙先生文集/附錄 • 百家類纂 • 大明集禮 • 丁酉式年司馬榜目 • 龍溪遺稿 • 受教輯錄 • 鳴皋集 • 梧里先生續集 • 谷雲集 • 楊湖先生遺稿 • 明谷集 • 內訓 • 二倫行實圖 • 南溪集 • 纂圖互註周禮 • 立巖集 • 纂註杜詩澤風堂批解 • 率庵遺稿 • 國朝五禮儀 • 國朝續五禮儀 • 崇禎再庚申增廣司馬榜目 • 喪禮備要 • 朱書節要 • 增補萬病回春 • 陰崖先生文集 • 聖學十圖聖賢道學淵源 • 闡義昭鑑 • 閔文忠公奏議 • 國朝喪禮補編 • 種德新編 • 六禮疑輯 • 節約通編 • 獨庵遺稿 • 久堂先生文集/附錄 • 薛文清公從政名言 • 寒水齋先生文集/年譜 • 兩漢詞命 • 御製雲漢編 • 御製百行源 • 崇禎再庚申增廣司馬榜目 • 礪溪隨錄 • 芸齋遺稿 • 青泉集 • 朱子語類大全 • 壺隱集 • 正庵集 • 史漢一統 • 兼山集 • 晉菴集 • 明義錄 • 續明義錄 • 唐宋八大家文鈔 • 東醫寶鑑 • 唐宋八子百選 • 春秋經典集解 • 敦孝錄 •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布折半蕩減綸音 • 北窓古玉兩先生詩集 •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考 • 大典通編 • 崇禎三丙午式年司馬榜目 • 閒靜堂集 • 三峯集 • 朱書百選 • 增訂挹翠軒遺稿 • 春秋左氏傳 • 增修無冤錄大全 • 史記英選 • 鄉禮合編 • 欽恤典則 • 儀禮經傳通解補 • 水北遺稿 • 痘科彙編 • 崇禎紀元後三丁酉增廣司馬榜目 • 直菴集 • 三禮儀 • 兵學指南 • 新刊增補三略直解 • 家禮增解 • 新編古今事文類聚 • 十九史略診解 • 少微家塾點校音通鑑節要 • 生六臣先生合集 • 痘疹會通 • 御定奎章全韻 • 杜律分韻 • 宋名臣言行錄 • 禮記集說大全 • 休翁集 • 史補略 • 六典條例

『東里集』, 『習齋集』²⁶⁾

[刊年未詳 未確定圖書]

25) 유택일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6) 조정화(1987), 295쪽. 조정화의 연구에서는 이 2종이 추가되었다.

• 訓義小學大全 • 新編醫學正傳 • 南軒集 • 類苑叢寶 • 司馬氏書儀 • 小學諺解 • 雅誦 • 歷代通鑑纂要 • 趙註杜律 • 漢書評林 • 海峯集 • 禮記淺見錄 • 警世問答 • 東國兵鑑 • 兵將圖說 • 擊蒙要訣 • 白江年譜 • 家禮 • 江陵金氏族譜 • 綱目 • 鷗浦集 • 杞溪俞氏族譜 • 農家集成 • 東國通鑑 • 唐詩鼓吹 • 病原式 • 桂苑筆耕 • 四溟集 • 袖珍韻 • 崇儒重道綸音 • 時藪 • 易學啟蒙 • 五柳先生集 • 吳子 • 柳文 • 莊陵誌 • 帝王韻紀 • 酒德頌 • 朱子敬齋箴 • 千字 • 清陸集 • 聽訟書 • 風雅 • 鶴泉集 • 韓文 • 壺谷集 • 皇明世說 • 黃帝素問 • 虞註杜律 • 季漢書 • 果齋集

이상은 기존의 연구에서 발췌한 영영판의 목록이다. 우선 [간년미상 미확정도서]라 분류된 서적들 중 많은 서적들이 간년 또는 영영판으로 보았던 전거典據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간년미상 미확정도서]의 간년 및 전거

서적명	저자	편찬연도	전거
訓義小學大全		1744년	『鏤板攷』 ²⁷⁾
新編醫學正傳	명 虞博	1691년	『鏤板攷』
南軒集	송 張栻 ²⁸⁾		
類苑叢寶	金堉	1643년	『鏤板攷』 ²⁹⁾
司馬氏書儀	司馬光	1767년	『鏤板攷』
小學諺解		1586년	『鏤板攷』
雅誦	正祖 御撰.	1799년 (嘉慶己未御命撰)	壬辰字 번각본.
歷代通鑑纂要		1507년	『鏤板攷』
趙註杜律		康熙初年	『攷事撮要』冊板印紙數條
漢書評林			『鏤板攷』
海峯集	洪命元	1682년	『宋子大全』권139. 「海峯集序」.
禮記淺見錄	權近		『鏤板攷』 ³⁰⁾

警世問答	英祖御製	1763년	『鏤板攷』
東國兵鑑	文宗命撰		『鏤板攷』 嶺南右節度營藏. ³¹⁾
兵將圖說		1742년	영조실록 ³²⁾
擊蒙要訣	李珥	1783년	嶺南監營 藏. ³³⁾
白江年譜			『鏤板攷』 ‘大丘湧泉寺藏’
江陵金氏族譜		1743년	桐華寺藏板 ³⁴⁾
鷗浦集	宋獻徵	1696년	
杞溪俞氏族譜		1645년	乙酉譜 ³⁵⁾
農家集成	申沔	1734년	『保晚齋集』 ³⁶⁾
東國通鑑	徐居正 등	1575년	『攷事撮要』
唐詩鼓吹		康熙初年	『攷事撮要』
四溟集	四溟大師	1612년	『古鮮冊譜』
時藪	明 胡應麟		
吳子			『鏤板攷』
柳文			『鏤板攷』
莊陵誌		1711년	刊記 ³⁷⁾
淸陸集	金德謙	1647년	金尙의 跋文에 의함.
鶴泉集		1706년	외손 李塾의 序 ³⁸⁾
壺谷集	南龍翼	1695년 ³⁹⁾	
黃帝素問		간 년 미상 ⁴⁰⁾	
虞註杜律	元 虞集	康熙初年	『攷事撮要』
果齋集	成近默	1883년	古鮮冊譜 ⁴¹⁾

27) 『鏤板攷』 외에 『保晚齋集』 권13, 「英宗大王行狀」 참조.

28) 목판본은 1498년(宋 弘治 11)에 沈暉의 淳熙 甲辰本을 重刊한 明板本을 復刻한 것이 판본을 후대에 번각한 것으로 추측.

29) 『古鮮冊譜』에서는 인조 22년 계미 간행이라 하였으나, 계미는 인조 21년, 1643년이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목록에는 없지만, 현재 영영에서 간행한 각종 경전의 간행 기록 또는 실물이 남아 있는데, 이 목록은 아래 [표 2]와 같다.⁴²⁾

[표 2] 영영 간행 경전 목록

서명	권책	간행연도
論語集註大全	20권 7책 / 17권 6책	壬午 / 丁巳
論語諺解	4권 4책	壬午(宣祖命撰) / 壬戌
大學章句大全	1책	戊子 / 辛丑
大學諺解	1책	戊子 / 壬戌

- 30) 『古鮮冊譜』에서는 ‘康熙中濟州大丘刻’이라 하였다.
- 31) 『東國兵鑑』의 초간은 문종 즉위년 3월 11일에 간행하였다. 이 책은 조선 후기에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 32) 『영조실록』 영조 18년 10월 15일. “命各道 重刊兵將圖說. 承旨洪象漢言 兵將圖說雖有重刊頒賜之命 然京中頒賜 無以廣布 宜令各道 重刊廣布 上從之”
- 33) 조정화(1987), 310쪽의 연구에 의함.
- 34) 강릉김씨 대동보 발간연혁기에 의하면 경상감사 金尙星이 1743년에 영영에서 간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35) •인조 23(1645). 乙酉譜. 대사헌 유철공이 경상도관찰사가 되었을 때 문충 유계공이 편찬하여 대구에서 인쇄, 간행하였다.
•戊午譜(영조 14년/1738) 한성관윤 俞拓基가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유척기는 을유년에 관각한 목판을 찾아 재판하고...(이상 기계유씨 족보 연혁에 의함)
- 36) 『保晚齋集』 권13. 「英宗大王行狀」 “英宗十年甲寅春正月 命八道監司兩都留守 廣印農家集成 均布民間...”
- 37) 간기에는 淸安縣監이 간행하였다고 한다. 영영판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38) 『鶴泉集』(외손 李塹)序 “~適家弟壁出按嶺南. 捐俸付之剞劂~崇禎後六十三年丙戌”
- 39) 남용익의 아들 南正重의 장인 李寅煥이 경상감사 재직시 판각.
- 40) 정확한 간행연도는 미상이나, 광해군 7년(1615년) 2월에 내의원에서 황제소경을 간행하고 6월에 반사하였다는 기록은 있다.
- 41) 『古鮮冊譜』에서 손자 成斗鎬가 간행했다는 기사에 의함.
- 42) 이 목록은 규장각 소장 영영판 책판 목록과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영영판 고서목록을 대상으로 조사한 목록이다. 간지의 정확한 연대는 일부만 확인되고 있다.

孟子集註大全		甲申
孟子諺解		甲申
詩傳大全		戊子
詩經諺解		戊子
周易傳義	22권 14책	戊寅
周易諺解	9권 5책	戊寅 / 庚寅 / 壬戌
周易傳義大全	24권 14책	庚寅 / 戊午
中庸章句大全	1책	戊子 / 戊午 / 丁巳
中庸諺解	1책	戊子
書傳大全	10권 10책	丙戌
書傳諺解	5권 5책	丙戌

위의 목록을 기준으로 이른바 영영판의 범주에 포함된 서적들을 살펴보면 첫째 사서오경과 같은 유학 경전 종류로, 이들 서적에는 말미에 경상감영에서 간행했다는 木記가 있는 책들이다. 둘째, 서문이나 발문 또는 각종 기록에 경상감사가 간행에 관여한 책들은 전부 영영판의 범주로 넣었다. 셋째 『鏤板攷』와 같은 각종 책판목록에 ‘嶺營藏板’으로 기록된 경우도 전부 포함하였다. 일부는 대구 인근의 龍淵寺, 湧泉寺 등이나 海印寺에 移板한 것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한 목록의 서책들을 모두 영영판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 만약 이 기준을 적용하여 영영판의 범주로 한다면 이 기준에 부합하여 영영판의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서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표 3] 영영판의 범주로 포함할 수 있는 서적 목록

서적명	전거
江陵劉氏族譜	『鏤板攷』의 嶺營, 完營, 大丘巡營 藏板이란 기록에 의함

南塘經義記聞錄	韓元震, 1741년 嶺營 판각. 古鮮冊譜에 의함.
古文謬選	鏤板攷
杜詩批解	鏤板攷
朴正字遺稿	14권 7책. 朴泰漢. 從子 敬堂감사 박문수 간행.
磻溪隨錄補遺	鏤板攷
白沙先生集	1726년 간행. ⁴³⁾
白洲集	李明漢. 효종~현종. 嶺營重刊
三綱行實圖	鏤板攷
三經四書大全	鏤板攷
醒翁先生逸稿	金德誠, 1706년 간행. ⁴⁴⁾
小華外史	吳慶元, 1830년 간행. 『鏤板攷』 嶺營간행. 桐華寺藏板
睡谷先生集	李畬, 1739년 판각. ⁴⁵⁾
樂靜先生文集	趙錫胤. 1670년 간행. ⁴⁶⁾
嶺南蠲惠總錄	1794년 판각. 鏤板攷
雩沙集	李世白, 1712년 판각. ⁴⁷⁾
醫學正傳	1579년. 『鏤板攷』.
樗軒集	李石亨, 1705년 판각
濟嬰新編	1902년. 李在夏 ⁴⁸⁾
靑松沈氏族譜	鏤板攷
秋江集	南孝溫. 1577년. 攷事撮要, 외손 俞泓 敬堂감사 재직시 초간. ⁴⁹⁾
春亭集	卞季良. 1482년. 문인 權孟孫 敬堂감사 재직시 판각.
破閑集	李仁老. 1493년 초간. 敬堂감사 李克墩 간행. 1659년 重刊.
寒水齋先生年譜	1761년. 『鏤板攷』

咸從世稿	1510년. 고사촬요. 경상감사 尹金孫(魚變甲의 사위) 간행.
玄洲集	尹新之, 1734년. 鏤板攷

모두 26종의 새로운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이 목록의 선정 기준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제시한 선정 방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III. 嶺營板의 기준에 대한 再考

현재 영영판으로 포함하는 기준의 가장 큰 전제는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서적이라는 점이다.⁵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서적들에는 첫째,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서적을 간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령과 교화 등을 위한 서적으로 四書五經(언해)을 비롯하여 교화를 위한 二倫行實圖, 예학서, 각종 법률서, 榜目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이후 관찰사 개인과의 인연(혈연, 학연 등)으로 간행한 인물의 문집, 유

43) 조정화(1987), 297쪽에 의함.

44) 후손 경상감사 金演 跋“~頃年不肖出守安陵 此乃先祖所莅之桐鄉 羹牆之慕 爲如何哉 遂捐俸倩工 得以刊印 伊後續得前席奏對之語 章筭遺逸之文 且撰次年譜 添入狀錄 分爲四編 及按嶺藩 更爲鋟梓 以壽其傳~歲在丙戌暮春下泮 曾孫嘉善大夫慶尙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大丘都護府使演謹跋”조간은 김연이 안주목사 재직시 간행, 중간은 김연이 경상감사 재직시 목판으로 간행.

45) 從子 감사 李箕鎭, 『고선책보』에서는 수곡집의 간행을 건륭 말~ 가경 초라고 보았으나, 이기진의 경상감사 재임 기간을 볼 때 1739년이 판각 연대로 볼 수 있다.

46) 조석운의 처조카 閔著重, 경상감사 재직시.

47) 아들 李宜顯, 경상감사 재직시 판각. 本家藏.

48) 간기에 “設牛痘局(1899)於嶺營新刊”이라 함.

49)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추강집』 목판은 1655년 金溝縣令 金壽恒이 제작한 5권 4책의 이른바 호남본에, 속록, 부록 등을 합쳐 1921년 청도군 신안에서 8권 5책으로 간행한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50) 주 1) 참조.

고, 실기 등과 족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각종 책판목록집에 기록된 ‘嶺營藏板’을 기준으로 영영판의 범주로 포함하였다.⁵¹⁾

첫번째의 기준에 해당하는 서적들을 영영판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런 종류의 책 말미에는 모든 감영의 판본이 그러하듯 예외없이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리는 간기가 판각되어 있어 영영판으로 규정하는가장 우선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사진 1)

	
영영판 논어언해와 목기 ⁵²⁾	영영판 시경언해와 목기
사진 1) 영영판의 목기의 예	

둘째, 영영에서 간행했다는 간기가 있다고 해서 이 책들 모두를 영영판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개인의 문집, 유고, 족보 등이 해당되며, 예외없이 관찰사와 간행된 책의 저자와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후손, 친족, 사승관계, 혹은 친분있는 자의 청탁 등으로 서책의 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책들 중에는 많은 책에서 영영에서 간행했다는 간기가 새겨져 있다. 앞에서 제시한 목록의 문집, 유고, 족보 등이 모두 이런 예에 속한다. 과연 이 책들을 영영판이라 할 수 있는지는 재고

51) 주 1) 참조.

52) 사진은 옆의 『시경언해』와 함께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을 촬영한 것이다.

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들을 간행한 주체인 경상도관찰사가 영남과 지연, 혈연의 인연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다른 인연없이 관찰사로 부임했다가 책을 간행하고, 남은 책판은 책 주인의 연고지로 이전하거나 대구 주변의 사찰에 보관하다가 이전, 또는 현재까지 남은 경우로, 대체로 아래와 같은 형식을 거쳐 책이 간행되었다.

- “~遺稿久在巾笥 門人金公載順 今爲嶺南伯 與嗣子彥傳相議入梓 而屬亮行爲序~53)
- “我先祖立巖府君遺集行于世蓋久矣 逸於壬辰兵燹 族曾大父振衣公 得完秩於順安 適宰興海 刊藏于郡 實萬曆庚戌歲也 後六十年而著重謬承朝命 忝按本路 謹就刊本 補填刊缺 復以公墓道之銘 附于編末 ~ 己酉八月十九日 五代孫守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大丘都護府使著重 謹識”54)
- “~是年冬 忝按嶺南 既到營 卽捐俸鳩工鋟梓 使先生舊編裨權喜學董其役 不數月而功告訖 先生之遺集 將自此大行於世~辛丑端陽 門人通政大夫守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大丘都護府使趙泰億謹書”冊板藏于陝川海印寺55)

일종의 공식과 같은 방법으로 우선 유고가 있고, 인연이 있는 자가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며, 책의 간행에 대한 청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판각하고, 책의 말미에 관찰가의 발문이 들어가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일부에서는 책의 경비를 부담했다고 하지만 막대한 경비가 필요한 목판본의 출간 경비 전체를 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거의 형식적인 수준의 경비부담으로 보인다.

53) 俞拓基, 『兼山集』, 「序」(金亮行).

54) 閔齊仁, 『立巖集』, 「跋」(閔著重).

55) 崔錫鼎, 『明谷集』, 「序」(趙泰億).

이때 간행된 서적의 책판은 모두 연고지로 이관되었는지, 혹은 대구와 이웃한 사찰, 주로 龍淵寺⁵⁶⁾, 湧泉寺 등과 桐華寺, 海印寺 등의 사찰에 藏板하기도 하였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 사찰들은 대구에서 대개 1시간 내외의 거리에 있는 사찰이라는 공통점과 해당 군현 향교의 屬寺로서 영영에서 판각된 책판을 옮겨 장판한 곳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판각하고 장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우선 제시하고자 한다.

앞의 사찰들 중에 현재 해인사를 제외한 앞의 사찰에는 불경판은 보존되어 있으나, 당시 기록에 나오는 유교책판들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들 책판이 어디로 갔는지는 문헌 기록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해인사의 경우는 해당 문중에 연락하여 전부 찾아갈 것을 통보하고, 찾아가지 않은 문중의 책판을 현재 4천여 장 정도 보존하고 있다.⁵⁷⁾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책판의 행방을 몇 가지 살펴보면 閔齊仁의 『입암집』은 판각 이후 연고지인 부여로 이전해 현재 충남 문화재자료 34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李廷龜의 월사집은 경기도 가평에 보존되어 있다. 曹好益의 『家禮考證』은 1649년에 경상감사 閔應協이 1649년에 영영에서 간행하였지만⁵⁸⁾ 이 책판은 이후 영천의 종가로 이관되어 보존되다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李顯益의 『正庵集』은 경상감사가 아닌 大丘判官에 의해 간행되었으나 영영판으로 분류되어 있다.⁵⁹⁾ 이는 경상감사가 대구부사를 겸임하는 관례에 의해 영영판으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된다. 몇몇의 책판들은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56) 현재 용연사에는 정도전의 『三峯集』 1장, 韓元震의 『儀禮經傳解補』 62장, 金鎭圭의 『竹泉集』 48장, 南有常의 『太華子稿』 11장 등의 목판만 남아 있다.

57) 이 역시 기록에 남은 것이 아니라 해인사 성보박물관을 방문하여 박물관 관계자 측의 설명에 따른 것이다. 관계자는 각 문중에 책판을 찾아갈 것을 요청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인사 소장 유교책판의 목록은 박상국, 『全國寺刹所藏木板集』(1987, 12.) 해인사 부분 참조.

58) 曹好益, 『芝山集』 附錄 권6, 年譜.

59) 李顯益, 『正庵集』 「序」(金亮行) “正菴李先生文集二十卷 其孫大丘判官商進 編次入梓而屬亮行爲其序”.

다음으로 책판목록에 기재된 서적도 그 책판목록을 작성할 당시 영영에 장판되어 있다는 의미이지 영영판이란 증거는 아니다. 즉 언제 책판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성책하였는가에 따라 영영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이판된 군현의 장판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본각이 아뢰기를,

“경상감사 홍낙빈이 엮어 올린 列冊에 있는 책판의 목록 가운데 더러 누락된 것이 있어, 본각이 즉시 관문을 내어 아뢰라고 명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보니, ‘신이 任所에 도착한 뒤에 날짜가 지연될 우려가 없지 않았습나다. 그래서 봉행하기에 쫓긴 나머지 미처 직접 검사하지 못하고 각 읍에서 보고한 데에 의거해서 成冊하여 올림으로써 이처럼 많은 책판이 누락되게 하여 問備를 받기에까지 이르렀으니, 황공한 나머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後錄한 것 가운데 『通鑑纂要』는 역대의 통감을 종이 88束에 써넣은 것으로 전에 보고한 성책 가운데 기입하였으며, 『靑泉集』의 판본은 연전에 營에서 합천군 海印寺로 移置하였으므로 該郡의 서책 속에 기입하였습니다. 대구에 있는 6종의 서책이 누락된 곡절에 대해 大邱府에 조사하니, 판관 具膺이 보고하기를, 『杞溪俞氏族譜』와 『江陵金氏族譜』는 다른 책과 차이가 있어서 감히 一例로 입록하지 못하였으며, 『元朝五箴』, 『愚齋集』, 『貞武公集』, 『近思錄』 등 4종은 연전에 慶州府로 移送하였으므로 입록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기타 각 읍에서 누락된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그 소행이 매우 놀라워 이제 막 신속히 관문을 내어 한편으로 조사하여 엄히 처리하고 한편으로 改修하여 보고하도록 신칙하였습니다. 이 밖에 각 읍 가운데 더러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剋缺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낱날이 列錄하여 보고하도록 일체 엄히 신칙하였습니다. 각 읍의 보고가 완료될 때를 기다려 성책하여 보고하려고 하는데 열읍에서 오가는 즈음에 지체될 우려를 면할 수 없으니 두려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하였다.⁶⁰⁾

위의 기사를 보면 『靑泉集』은 언제 조사하는가에 따라 영영판으로 분류디

60) 『日省錄』, 정조 3년(1779년) 12월 12일.

기도 하고, 합천 장판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그 뒤에 나오는 『元朝五箴』 등도 본래는 영영판으로 분류될 수도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각종 책판목록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목록기록의 원칙은 한번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몇 가지 보기들도 마찬가지로 책판목록의 정확성을 재고하게 하는 몇 가지 예라 할 수 있다.

李殷相(연안. 1617~1678)⁶¹⁾의 문집 『東里集』은 이은상의 외손 金鎭華가 의성부사로 있을 때 의성에서 판각하고 경상감영으로 移板하였다.⁶²⁾ 『習齋集』은 習齋 權曄의 시문집으로 1578년에 공주에서 초간되고, 1653년에 증손 權諤에 의해 星州에서 중간되었다.⁶³⁾ 이를 영영판으로 볼 수 있을까?⁶⁴⁾ 정탁의 『약포선생문집』은 5대손 鄭玉이 해주관찰사로 부임하였을 때 해주감영에서 간행한 문집이지만 『누판고』에서는 해주감영판이 아닌 안동부장판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책판목록의 기록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한 사례이다.

李宜朝의 『家禮增解』도 선행 연구에서 영영판으로 분류된 책이다. 그런데 『家禮增解』는 김천의 鏡湖影堂에서 1824년에 판각되었으며 현장에 아직 책판이 남아 있고, 필자는 이를 직접 조사한 경험이 있다. 이 책판의 간기에는 경호영당에서 간행되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만 경상도 감영과 관련된 기록

61) 李殷相, 字 說卿, 號 東里, 본관 延安. 생몰 1617~1678. 月沙 李廷龜의 손자. 金萬重의 丈人.

62) 李殷相, 『東里集』, 序(金昌協). “~ 今義城宰金君鎭華 公外孫也 以公集序見屬 噫 其又何辭 ~始公嗣子檢閱君潤朝早沒 遺孫稚弱 公嘗以其詩草 託其女婿尙書金公萬重 尙書就加刪定 藏于家 及義城爲縣 則公沒且二紀 而尙書亦下世久矣 乃喟然曰 吾先人遺稿 尙未刻也 然此猶可緩 若外祖父詩 吾不及今鋟梓 不殆於湮滅無傳乎 遂因尙書所刪定 而附以駢儷諸文 爲十六卷 捐其俸廩 以庀刻事 未半年而工告訖 公之文集 自今其將大行於世矣 昔楊惲能讀外祖父司馬遷書 班史紀之 若義城之爲 其亦可書也已. 崇禎紀元後七十五年壬午 安東金昌協謹書”

63) 權曄, 『習齋集』, 識(權諤). “~逮至仁祖大王丁亥歲 不肖諤叨被謬恩 作宰公山 計將重刊 廣布於世 而日不暇給 坐事見遞 有志未就者 今又七年餘矣 上年冬 幸霑新化 復叨州紱 顧念孤露餘生 萬事灰心 而惟以償其願爲平生一大幸也 遂鳩材募手 數旬而訖功 斯文之不墜 其亦有待乎時矣 ~ 歲癸巳季冬月 不肖曾孫星州牧使權諤 謹識”

64) 조정화(1987), 295쪽.

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데, 왜 영영판의 목록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IV. 영영판의 범주와 판본의 특징

규장각에는 경상감영에서 판각된 책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밝혀진 사실이다.⁶⁵⁾ 영영판을 간행한 책판으로 현재 남은 것은 규장각에 소장된 18종 4,205장으로 확인되는데, 그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규장각 소장 영영판 책판목록⁶⁶⁾

연번	책판명	판각연도	권수	판수	현 상태	비고
1	논어언해	1822	4	143	완질	
2	논어집주대전	1822	20	385	결	권6(55), 권8(9,10), 권10(31), 권11(33,34). (번각)
3	맹자언해	1824	14	288	완질	

65) 2015년에 대구의 일부 언론사에서 처음으로 영영본 책판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영영판 책판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이 책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규장각으로 옮겨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찰을 할 수가 없다. 가장 알려진 경로는 함방과 함께 관찰영이 없어지면서 경상감영의 책판들이 서울로 이관되어 총독부 도서관 소장이 되고, 경복궁의 회랑에 쌓여 보존되다가 1975년에 서울대학교가 동숭동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규장각 소장이 되어 현재의 장소로 옮겨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66) 이 표는 규장각에서 제공한 목록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규장각 소장 책판 전체를 조사하지는 못하였으며, 표 안의 <비고> 역시 규장각에서 제공한 내용이다. 자료를 제공해 준 규장각측에 감사를 드린다.

4	맹자집주대전	1824	14	307	완질	
5	중용언해	1828		31	완질	
6	중용장구대전	1828		73	완질	
7	대학언해	1828		16	완질	
8	대학장구대전	1828		43	완질	
9	시경언해	1828	20	282	완질	
10	시전대전	1828	20	456	완질	
11	서전언해	1826	5	203	결	권3(77,78).
12	서전대전	1826	10	412	완질	(무신자변각)
13	주역언해	1828	9	207	완질	
14	주역전의대전	1858	24	654	결	권23(57), 권24(55).
15	상례비요	1888	2	70	완질	
16	少徽家塾點校 附音通鑑節要	1772	26	321	결	권1~권24 전체
17	소학언해	1744	6	248	완질	
18	鳴皋集	1726	10	66	결	任鏞의 시문집. 권1(2,3), 권3(12,13), 권4(6,7), 권5(2,3)

물론 이는 규장각에 남은 책판의 목록이지, 간행된 서적의 전부라는 의미는 아니다. 앞에서 이미 사서오경(언해)도 간지가 다른 책들이 간행되었음을 적기하였다. 이외에도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영영본이 다수 있는데, 앞의 사서오경을 제외한 목록은 아래와 같다.

• 喪禮備要(1812년) • 史漢一統(乙未) • 新編古今事文類聚(辛卯) • 大典通編(乙巳) • 增修無冤錄(丁巳) • 春秋左傳(內題:春秋經傳集解/癸卯) • 二倫行實圖(1730년) • 史記英選(1750년) • 禮記集說大全(1848년) • 纂圖互註周禮(乙卯) • 全韻玉篇(戊戌) • 杜律分韻(乙未) • 東醫寶鑑(己亥) • 八大家(戊戌) • 兵學指南(癸酉)

위의 규장각 책판목록과 한국국학진흥원 영영본의 목록을 비교하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영영판임을 표시하는 木記가 판각되어 있다는 점과 규장각의 『鳴皋集』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문집이나 족보 등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유일한예외인 『鳴皋集』에는 목기가 없다는 것을 밝혀 둔다. 만약 ‘영영장판’ 또는 ‘영영신(개)간’이란 목기가 있는 책만을 영영본으로 분류한다는 전제로 선행연구의 목록을 새롭게 작성하면 아래의 131종으로 요약될 수 있다.

[확인된 영영판 목록]⁶⁷⁾

• 分流杜工部詩(諺解) • 易學圖說 • 笏記 • 龍飛御天歌 • 東萊先生音註唐鑑 • 百家類纂 • 大明集禮 • 丁酉式年司馬榜目 • 受教輯錄 • 內訓 • 二倫行實圖 • 纂圖互註周禮 • 纂註杜詩澤風堂批解 • 國朝五禮儀 • 國朝續五禮儀 • 崇禎再庚申增廣司馬榜目 • 喪禮備要 • 朱書節要 • 增補萬病回春 • 闡義昭鑑 • 國朝喪禮補編 • 種德新編 • 六禮疑輯 • 節約通編 • 兩漢詞命 • 御製雲漢編 • 御製百行源 • 崇禎再庚申增廣司馬榜目 • 朱子語類大全 • 史漢一統 • 明義錄 • 續明義錄 • 唐宋八大家文鈔 • 東醫寶鑑 • 唐宋八子百選 • 春秋經典集解 • 敦孝錄 •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布折半蕩減綸音 •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考 • 大典通編 • 崇禎三丙午式年司馬榜目 • 朱書百選 • 增訂挹翠軒遺稿 • 春秋左氏傳 • 增修無冤錄大全 • 史記英選 • 鄉禮合編 • 欽恤典則 • 儀禮經傳通解補 • 痘科彙編 • 崇禎紀元後三丁酉增廣司馬榜目 • 兵學指南 • 新刊增補三略直解 • 新編古今事文類聚 • 十九史略諺解 • 少微家塾點校音通鑑節要 • 痘疹會通 • 御定奎章全

67)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앞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가감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하 동일.

韻・杜律分韻・宋名臣言行錄・禮記集說大全・六典條例 (62종)

[刊年未詳 未確定圖書]

・訓義小學大全・新編醫學正傳・類苑叢寶・司馬氏書儀・小學診解・雅誦・
歷代通鑑纂要・趙註杜律・漢書評林・禮記淺見錄・警世問答・東國兵鑑・兵
將圖說・擊蒙要訣・家禮・綱目・農家集成・東國通鑑・唐詩鼓吹・病原式・
袖珍韻・崇儒重道論音・時藪・易學啟蒙・五柳先生集・吳子・柳文・酒德頌
・朱子敬齋箴・千字・聽訟書・風雅・韓文・皇明世說・黃帝素問・虞註杜律
・季漢書 (37종)

・論語集註大全 壬午/丁巳・論語診解 宣祖命撰. 壬午/壬戌・大學章句大全 戊
子/辛丑・大學診解 戊子/壬戌・孟子集註大全 甲申・孟子診解 甲申・詩傳大
全 戊子・詩經診解 戊子・周易傳義 戊寅・周易診解 戊寅/庚寅/壬戌・周易傳
義大全 庚寅/ 戊午・中庸章句大全 戊子/戊午/丁巳・中庸診解 戊子・書傳大
全 丙戌・書傳診解 丙戌 (24종)

[영영판의 범주로 포함할 수 있는 서적 목록]


・庚申司馬榜目・古文謬選・杜詩批解・三綱行實圖・三經四書大全・嶺南鐫
惠總錄・醫學正傳・濟嬰新編 (8종)

이렇게 볼 때 영영에서 간행한 책들은 경전류와 역사서, 어정서, 중국학자의 문집 등을 비롯하여 병서, 의학서, 중국 문학서 등 국가의 경영, 교육 등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책들을 중심으로 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서적은 경상감영의 공식적인 경비를 집행하여 판각한 서적 간행 행위로 당연히 영영판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문집, 족보 등은 일종의 관례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경상감사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경상감영의 물자와 경상감영의 각수를 편법으로 동원하여 서책을 간행한 것일 뿐 어떠한 公의인 행위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일반 백성들의 원성을 초래한 일이었다.⁶⁸⁾ 경상감

영의 운영을 위한 서책 간행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영영판과는 다른 범주의 서책간행이라 할 것이다.

영영판이 가진 판본상의 특징은 표본이 많지 않고 또 규장각에 남은 책판의 종수가 18종뿐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영영판 책판의 특징을 찾기는 사실 힘들지만 우선 위 18종의 책판을 통해 찾을 수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외없이 책의 말미에 “○○新(開)刊 嶺營藏板” “○○○○ 嶺營新刊” 등의 목기가 있다는 점이다.⁶⁹⁾ 목기의 형태는 논어와 대학은 크기와 형식이 동일하며 대부분의 목기가 이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사기영선은 형태는 동일하나 크기가 적고,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是 크기는 동일하지만 양각이 아닌 음각으로 판각되어 있다. 책에 따라 크기와 판각의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라 볼 수 있다.(사진 2)



	
<p>논어언해⁷⁰⁾</p>	<p>史記英選⁷¹⁾</p>

68) 『五洲衍文長箋散稿』『天地篇 / 地理類』〈洞府〉. ‘龍華洞辨證說’ “龍華洞 在尙州 靑州交界(중략)然自尙州派定校書館冊版本物 一戶徵十四五緡 甚於繇役 故爲如干居民之一大痼弊 而人多避之(중략) [洞有七村] 田畝竝白沙 故一斗落僅收三十斗 田則尤瘠 若糞腴則亦不至狼狽 而居人以爲若除冊板徵納 則足以耕稼保聚” 참고. 아마도 각 감영, 군현에서 간행한 서책의 대다수가 이처럼 백성들에게 징납의 형태로 거두어들인 판목 또는 판목가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69) ○○에는 干支가, ○○○○에는 ‘丁巳五月’과 같은 간기가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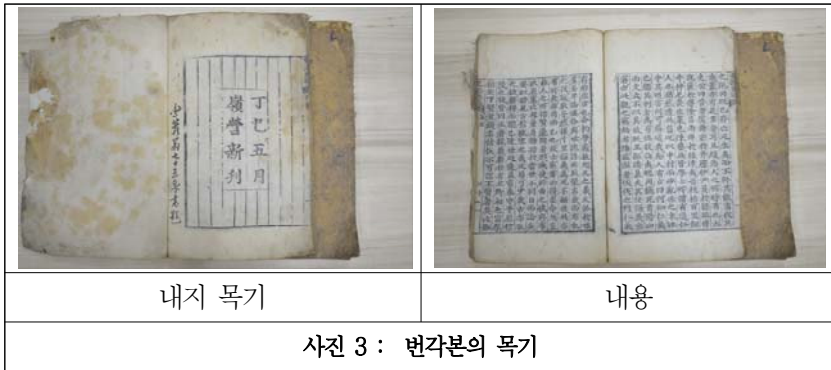
70) 이 사진은 규장각에서 제공해 준 사진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영영 판각의 책판 사진은 전부 규장각에서 제공한 것임을 밝혀 둔다.

71)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대학언해	少微家塾點校音通鑑節要
사진 2 : 목기의 종류	

그런데 경상감영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는 교화나 정령과 관련된 책을 교서관, 주자소 등에서 활자로 간인한 후 이를 각 감영에 내려 널리 보급하기 위한 다량의 책을 간행하기 위하여 목판으로 번각하는 일이 흔하게 있었다. 이를 경우는 책의 서두와 말미에 각각의 목기를 넣어 번각본임을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영영관 사기영선	내지 목기



둘째, 책판은 예외없이 引刻의 수법을 이용하여 판각되었다. 현재 책판을 판각하는 각수들은 거의 대부분 打刻法을 사용하여 판각을 하고 있다. 두 기법은 칼날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타각법에 사용하는 칼날은 주로 양날을 사용하며, 인각법에서는 외날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인각을 사용하게 되면 글자의 아래 부분이 거의 직각에 가깝게 판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날 칼날을 사용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규장각 소장 영영판 책판 18종은 모두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⁷²⁾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전통적인 조선의 판각 기법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각수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자신의 방법이 전통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부 타각법을 사용하며 인각법을 사용하는 각수를 전통이 아니라고 몰아세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영영판도 그렇지만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책판 중에서도 인각으로 판각한 책판들이 상당양이 있다는 점은 한국의 전통 목판 판각술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말해 준다.⁷³⁾

셋째, 글자 체, 판각 기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경상감영 소속 각수(또는

72) 이 부분은 판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반드시 책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문제는 규장각 소장의 영영판이 너무 낡아 사진으로 판독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책판을 보고 내린 결론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73) 말하자면 한국의 전통적인 판각법이 타각이 아닌 인각일수도 있다는 점이다.

각수 집단), 또는 특정한 각수(각수 집단)들에 판각된 듯 동일한 판각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如出一手’라는 말처럼 도각수를 중심으로 판각 작업이 있을 때 함께 모여 공동 작업을 한 각수집단의 존재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각수집단의 존재는 잘 파악하기 힘든데 경상도에는 경상북도 영주 평은, 안동 목계, 경상남도 합천 야로 등에서 각수집단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⁷⁴⁾

현존하는 책판들은 대학, 논어와 같은 경전(언해)인데, 책판의 닳아 있는 모습으로 보아 수요가 매우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책판을 처음 제작하였을 때 界線은 1mm 이하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책판들은 잦은 인출로 계선이 닳아 버려 2~4mm 정도의 굵기가 되었으며, 책판의 글씨도 그만큼 닳아서 목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도 다수 있었다.

V. 맺음말

필자는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 간행된 목판본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적인 목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목판목록집에 수록되지 않은 목판들이 수없이 나타났고, 이에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간행되었는지? 또 그 책들 중에는 목판으로 간행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4~5년 전부터 목판 목록집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95% 이상의 목판목록집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경판은 따로 목록집을 작성하여 일부는 이미 발표를 했고, 유교책판에 대해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지만, 발표 이후에 다시 발견한 목록들이 있어서 발표한 글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74) 남권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책판을 대상으로 각수들이 인명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남권희,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 각수 인명록』 (2014.12) 참고.

이 목록집에 의하면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약 9천종 정도의 목판본(불경판 제외)이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약 80% 이상은 개인의 문집과 실기, 유고 등이며, 경상도에서 가장 많은 목판본이 판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⁷⁵⁾

팔도감영의 경우는 아직 통계를 작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영영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판각된 양에 비해 현재 남은 책판의 숫자는 규장각 소장 책판뿐인 것으로 확인되며 그 종류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영영판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성을 느껴 목록을 새롭게 정리해 보았다. 물론 극히 개인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목록에서 빠진 것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보충하기로 약속하며 현재 진행 중인 목판목록집이 완성되면 보다 자세한 목록이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6월 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6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75) 상세한 통계는 목록집의 해제에 수록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世宗實錄, 世祖實錄, 成宗實錄, 明宗實錄, 英祖實錄
- 鏤板攷
- 五洲衍文長箋散稿
- 崔恒, 『太虛亭集』
- 徐命膺, 『保晚齋集』
- 成汝學, 『鶴泉集』
- 俞拓基, 『兼山集』
- 閔齊仁, 『立巖集』
- 崔錫鼎, 『明谷集』
- 曹好益, 『芝山集』
- 李顯益, 『正庵集』
- 李殷相, 『東里集』
- 權 摯, 『習齋集』
- 江陵金氏族譜
- 杞溪俞氏族譜
- 前間恭作, 『古鮮冊譜』
- 柳鐸一, 『영남지방 출판문화 논고』 (세종출판사, 2001).
- 경상북도, 『慶尙道七百年史』 제3권.(2006).
- 남권희,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 각수 인명록』 (2014.12) 참고.
- 趙婷化, 「朝鮮朝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2, 1987.
- 조정화, 「조선조 후기 영남관판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윤병태, 「경상감영 및 대구간행의 목판인쇄문화」 『圖書館報』 4. (1979).
- 장인진, 「경상감영의 인쇄문화가 지역출판에 끼친 영향」, 『한문학연구』 17. (2003)

Abstract

Review on Publication Category of Gyeongsang Provincial Government.

Park, Soon

Gyeongsang Province was one of the popular regions for publication during Joseon Dynasty period; in the center of this, there was Gyeongsang provincial government that led the culture of publication. Gyeongsang provincial government published books(嶺營板) that focused on details connected to central government policies, and details that are needed to govern Gyeongsang Province. Inscription was added toward the end of the entire book without exception, this indicated that the book was published in Gyeongsang provincial government. However, many books that are unrelated to Gyeongsang provincial government policy, published under expense of provincial government due to personal relations to the governors, were found with the identical inscription. Author had been wondering whether these should be included in the publication category of Gyeongsang provincial government. Author believed that these should be considered as books published in personal business of the governors rather than public interest; and that books that are to be included in the publication category of Gyeongsang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be judged by their publishing purpose. In this paper, we presented a

* Documentary Heritage Center,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list of publications that can be newly included in the publication category of Gyeongsang provincial government by setting publishing purpose as the judgment standard.

Keyword : Gyeongsang provincial government, Gyeongsang provincial government publication, public interest, inscription, provincial government expense,